

山地利用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玄 信 圭

1960年 美國 Seattle市에서 開催된 FAO 第5次世界 林業大會는 林業에 一大 轉換點을 가져다 주었다.

即 山地의 機能은 木材生産 뿐 아니라 國土保全, 公害防止, 水源涵養, 休養地提供, 野生動物管理, 家畜의 飼料提供 等 山地를 調和있고 智慧롭게 多目的으로 活用하는데 그 使命이 있다고 規定하므로서 林業經營을 위한 山地利用에 새 方向이 提示되었다. 따라서 그때부터 先進各國에서는 山地를 地形, 位置, 地力, 交通 等の 細密한 調査에 의하여 用材林造成 區, 人間環境保全林(休養林)圈, 農地開墾圈 등으로 分類規定하여 山地를 國民福祉를 위하여 가장 合理的으로 活用하려고 努力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世界의 林業經營의 흐름에 따라서 治山 綠化 第2次 10箇年 計劃에서 2030年代까지에 現在 山林面積에서 約 100萬町步를 草地 等 農用地 開墾 用으로 策定하고 있다.

이번 政府에서는 肉類의 自給을 위하여 向後 10年 間에 20萬町步의 山地草地造成計劃을 發表하였다. 이는 國民의 食糧自給을 위하여 取해진 措處로서 누구도 이에 反對할 사람은 없다. 다만 解放後 荒廢가 極에 達했던 우리나라 山林이 近 40年間의 刻苦 끝에 이제 겨우 綠化가 되었을 뿐 아직도 用材生産과 地力 育成은 이제부터 겨우 始作되고 있는 時點에서 草地 造成施策으로 因하여 用材林造成과 山林의 公益의 機能이 輕視되어서는 안되며 過去의 草地造成과 山地開墾이 適地選定이 잘못되고 事後管理가 未洽하여 草地 造成의 目的대로 活用되지 못하고 數百年이 걸려서 이루어진 森林이 荒廢地로 化하여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森林으로 復舊한 經驗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前轍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計劃實施段階에 있어서 慎重을 기해 줄 것이 鑿切한 所望이다. 그 中에서도 特히 所願되는 것은,

1. 國有林은 用材生産圈에 속하는 林地인 故로 草地對象地에서 除外되어야 한다.

國有林은 보다 奧地에 있으며 全體林野面積의 20% 밖에 되지 않으며 用材生産에 있어서 가장 緊要한 役割을 하고 있는 林野이다. 町步當 林木蓄積이 民有林에 比하여 2.7倍나 되는 國有林은 林木의 生長 率로 보아 用材生産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最高의 價値를 지니고 있는 山林이다.

우리나라는 每年 10億弗에 가까운 外貨를 消耗해 가면서 木材需要量의 約 90%를 海外에서 輸入하고 있는 故로 國內木材資源을 時急히 育成하여서 木材 輸入을 조금이라도 減少시키는 일이 焦眉의 일일 뿐 아니라 아직 造林과 撫育의 技術指導體系가 定立되어 있지 않은 狀態에서 科學과 技術을 投入하여 造林 撫育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唯一의 林地이다.

町步當 平均木材蓄積이 200立方m(우리나라의 約 10倍)에 달하고 있는 훌륭한 林地를 갖고 있는 西德을 비롯하여 모든 先進國들은 가까운 將來에 닥쳐 올 世界木材飢饉과 必然的으로 到來하게 될 木材武器化에 對備하여 林地의 擴大와 科學的 造林撫育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는 事實, 또 一次世界大戰 中에 木材 不足으로 極甚한 困境을 겪은 大英國이 一次大戰이 끝나자 곧 Scotland의 本來 울창했던 森林을 伐採하고 牧羊을 위한 草地로 轉換使用하던 山地를 國費로 每年 數萬町步式 도로 買收하여 가장 利學的인 造林을 今日까지 계속 力行하고 있는 事實 등을 보고 있으면서도 木材貧困에 極甚한 困難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廣闊한 面積의 民有林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用材生産에 가장 緊要한 國有林地를 草地造成地로 開放한다는 것은 用材生産에 致命傷을 주는 일이 되는 故로 國家의 먼 將來를 위하여 결코 等閑視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2. 山林의 公益의 機能, 특히 水資源涵養 機能을 害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年中降雨量은 平均 1159mm 이어서 充足한 量이나 그 折半 程度가 夏節雨期에 集中豪雨로

내리는 事實이 地被造成이 不完全한 山腹傾斜地에서 浸蝕을 일으켜서 荒廢地로 되고 마는 일을 數 많이 보아왔다.

建設部 統計에 의하면 우리나라 年平均 降水量의 總量 1,145億톤 중에서 太陽熱에 의한 蒸發量을 除하고 나면 630億톤의 降水量이 地上에 남게 되는데 그 중 240億톤이 國民들의 每日生活用水, 灌溉用水 및 工業用水 등으로 使用되고 있고 나머지 390億톤이란 莫大한 量의 물은 地表로 흘러간다. 우리나라 山地의 地表는 完全히 被覆되어 있지 못하고 林間裸地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을 뿐 아니라, 腐殖質이 없는 탓으로 土壤이 堅密하여 降水를 地中으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地表로 流失케 하여 土砂를 밀어내려 田畠을 埋沒시키고, 急激한 洪水를 일으켜 人畜의 生命과 財産에 悲慘한 被害를 주고는 바다로 直行해 버리는 소위 洪水流出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實情下에서 傾斜度가 36度나 되는 急傾斜地에까지 草地를 造成하다가 만일 失敗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人間이 하는 일인 고로 失敗가 全然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는 것은 過去의 實績이 가르켜 주고 있다. 이러한 일은 곧 洪水流出量을 增大시키는 結果가 될 것이 틀림없는 일이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

지 않도록 미리 豫防하기 위하여서는 草地造成者에게 慎重한 責任感을 갖게 하기 위하여 草地造成에 失敗할 때에는 完全한 原狀復舊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最小限 造林復舊에 대한 責任을 지게 하는 일이 國土 保全과 國家利益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끝으로 附言하고자 함은 美合衆國 政府가 1980年 7月 24日에 發表한 特別報告書「西歷 2000年의 地球」中에서 100餘名의 權威者들에 의하여 研究報告된 「林業豫測」이란 章에 記錄된 內容이다.

即 西歷 2000年까지 中國과 南·北韓에서는 계속 植林이 進行될 것인고로 森林面積이 4% 純增될 것이 豫測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南 및 東南 아시아의 天然林은 1億ha 以下로 減少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들은 開發不可能한 山岳地帶 아니면 濕地帶에 있거나 또는 山林이 惡化되어서 商業的 利用이 不可能한 것 들일 것이다. 그러나 中國과 南·北韓에서는 開墾에 의한 森林의 減少가 植林에 의하여 補完될 것이며 森林面積은 얼마간 增加될지도 모른다 라고 내다보았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世界的인 眼目으로 期待하는 바와 恰히 어그러지지 않는 方向으로 가고 있는가? 만드시 反省해 보아야 할 일이다.